

토론문

소준철*

1. ‘대안’의 성격과 대안 내부에서의 간디고등학교의 위치에 대해

‘대안’과 ‘비-대안’이라는 설정은 무척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간디고등학교와 간디고등학교의 구성원이 제도로부터 ‘대안’의 상태에 머무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간디고등학교는 최초의 대안학교 이기는 하지만, 1998년 특성화학교법에 따라 교육부의 인가를 처음으로 획득한 인가형 대안학교라는 점 역시 밝혔어야 합니다. 단순히 간디고등학교가 (진정한?) 대안학교가 아니라는 의견을 드리기보다, 간디학교는 정부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생산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의 한계 속에서 제한된 처지에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대안성’은 여타 대안학교의 경우와는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대안학교 내부에서 간디고등학교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나름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주체성은 어떤 실천들 속에서 형성되는가?

누군가의 주체성의 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들의 진정성과 실천을 파악하는 일은 꽤 흥미롭습니다. 특히 어떤 ‘실천’이 어떠한 (일련의) ‘연쇄’로 이루어지는지를 제시하는 기준을 설정하는데서 꼼꼼함이 드러납니다. 이 원고의 경우, 지은이의 문제제기를 통해 이 꼼꼼함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간디고등학교 내에서 ‘교육적 실천과 일상생활에서 ‘진정한 교육’, ‘진정한 개인/자아’,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심적 추구가 존재하고, 이것들이 각각 학교 바깥의 대상들과 긴장-대립의 관계로 정의-경합-추구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장 두 번째의 문제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제시된 ‘진정성’의 추구는 의미론으로 작동하며, 간디고등학교라는 교육기관이 스스로를 (진정성이라는 주제를 둔) 퍼포먼스의 무대로, 구성원들이 해당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주체성의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자 규칙과 규율의 장소이자, 실재하는 공간이기도 하며,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의 총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실험적 속성 탓인지 정부와 (초기에는) 생태주의를 지향하는 활동가들의 기대와 참견을 받는 실험장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성된 간디고등학교의 공간과 규율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유동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그럼에도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잘 알려진대로) 학교의 시간표에 대한 분석은 학교 공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인가형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대안”과 “비-대안”의 절충을 이루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렇다면 지은이가 대표적인 의례로 언급한 ‘식구총회’ 뿐만 아니라 ‘삶과 철학’, ‘졸업작품(축제)’, ‘이

*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동학습(외부 인턴십)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된 학교철학 영역은 간디고등학교의 특성화교과이면서도 동시에 학교로서의 교육적 실천과 '심적 추구'가 연계된 영역**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주를 여는 시간', '4.19 마라톤', '세월호 추모주간', '물레제', '간디문화', '간탄일'(개교기념일) 등으로 구성된 창의체험활동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정리되어야 학교 내의 미시적 생활에 대한 분석 영역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 진정한 것에 대한 추구: 교육, 개인(자아), 공동체

진정한 것들에 대한 심미적 추구는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추구로 귀결되는 설명으로 읽힙니다. '교육'과 '개인'은 '진정한 공동체'와 각각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디고등학교에 (1) 공평한 발언의 기회, (2) 공동체 속의 위치 확인과 상호작용에의 참여라는 원칙이 존재한다고 정리합니다. 이 모습은 '식구총회'에서 발표시에 발생하는 "자세의 교정"이라는 단면을 제시합니다. 더구나 다른 곳과 달리 '생활교사'라는 보직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를 '노동'의 장으로 전환하는 순간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행사'를 의례화하는 작업, 이 가운데서 개인-공동체의 연동은 분명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1) 준비운동과 (2) 식구총회(자세의 교정)의 사례를 제시할 때, 교육-개인-공동체의 연계라는 개념적 설정에 맞추어 설명을 해 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 진로: 공동체 바깥을 나가는 일에 대한 질문과 그들 나름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재학생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이란 바깥의 세계와 나와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나를 공동체의 일부로 구성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진로를 묻는 일은 공동체를 이탈할 것인지 혹은 공동체에 머물지를 결정하는 질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진정성의 practitioner로써 공동체 이후의 삶에 대한 상상을 머무는 것을 묻은 것이죠. 이에 대해 지은이는 '진정한 진로'의 주장 방식이 존재하며, '공동체 망실의 위협'으로 드러난다. 또한 독특한 정체성으로 '특별병'****이 발생합니다. 이는 재학생들에 한한 논의일 겁니다.

간디고등학교의 학생은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노동하며' 함께 버티는 공동체를 구축하고 살아가기를 요구받습니다. 더구나 학교 내부에서는 '진정한 존재'가 되어간다는 걸 꾸준히 증명하고, 공동체의 인정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 받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동시에 일시적인 '학생 생활'의

** 이 심적 추구는 어디에서 왔을까? 예컨대 초대 교장인 양희규는 철학박사이며 (그 동생인) 양희창은 전도사 출신이고, 이들의 부친이자 초대 이사장인 양영모는 은행원 출신으로 장로회 장로이기도 했다. 일종의 기독교적 전통과 (양희규가 처음 대안학교의 설립을 논한) 『녹색평론』의 생태주의 운동, 1994-1995년 당시의 사회운동의 변화, 1997-1998년 당시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실천 등이 뒤엉킨 어딘가로 추정되지만, 아직 정의내릴 수는 없다.

*** 간디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총 204단위를 이수해야 하며, 보통교과 85-115단위, 특성화교과 65-95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흔히 '간디병' 혹은 '간디병'이라 부르는 걸 텐데요. 대안학교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자병'이랄지, '민들레병'이랄지 다양하죠.

이후를 상상해야 하는 문제에 처합니다. 대학으로 ‘탈-대안’한 경우는 일종의 ‘진정성’의 위반을 끊임 없이 고민하며, ‘대안’의 영역에 머무는 경우 개인-공동체의 연계를 확인하며 버티어 나갑니다. (과거부터 간디고등학교는 주로 “인턴쉽”을 통한 학교 바깥의 공동체를 확인하게 하였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고립/소외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제시하려는 노력일 겁니다. 진로에 있어 이중구속이 만든 ‘합리적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중구속의 결과는 ‘탈-대안’ 혹은 ‘비-대안으로의 이행’이거나 ‘기획자로서의 삶’이지 않을까요?

5. “이중구속”으로 무엇을 어느만큼 설명할 수 있을까?

이중구속은 사실상 진로, 즉 “미래와 (스스로가) 생산해 낼 세계에 대한 상상과 정체성의 논리”, 더 나아가 “자기 삶의 기획”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질 때 해소됩니다. 즉, 이중구속의 상황이 ‘진정성’과 ‘자랑스러움’의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그래서 되려 이중구속을 소비하는 양상이 진정성을 생산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중구속이 존재한다, 는 주장을 넘어 ‘이중구속’의 지속성과 그 영향에 대해 논하는 것도 논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간디고등학교 졸업자의 60-70%는 비진학, 30-40%는 진학을 선택합니다. 결과적으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자기 기획의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게다가 간디는 다른 대안학교와 달리 마을을 구성하고, 금산, 필리핀 등으로 그 공동체의 구성과 크기를 확장하고, 또 연결하고 있습니다. 간디고등학교를 둘러싼 주체들을 보다 확장하면, 간디와 일부 대안교육의 공동체성에 대한 논의로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